

# 무소유 삶 '공유 사회'로 가는 지름길

## 왜 '공유사회'인가



유정길  
지해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조계종환경위원

지금 우리는 '공유, 나눔, 협력, 협동'이 화두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대전의 한밭레츠(Lets)는 이미 15년 넘게 지역통화(Local Currency)를 실시해온 곳이다. 700여가구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물건을 '두루'라는 자기들만의 화폐로 상호교환하며 공유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지역통화는 은평의 'e-품앗이', 성남지역화폐 '누리' 등 전국에 4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로 공유되고 나누는 것이 많아지면 실제의 현금사용은 줄어든다.

홍대앞 성미산마을공동체는 1994년 육아공동체로 시작하여 19년간 지역공동체를 안착시켜 너무도 유명해진 곳이다. 이곳은 인문학 독서클럽, 연극·사진 동아리, 합창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가하는 '무말랭이' 극단, 주민 노래패 '진동', 성미산풍물패, 울림두레생협 합창단 주민 밴드 '아마(아빠·엄마의 준말)밴드'와 '7013B', 사진 동아리인 '동네사진관', 아빠들의 독서모임 '이런저런' 등 가히 전국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표본이 된 곳이다.

여기에 최근 시도되고 있는 것은 코하우징(Co-Housing 공동주택)이다. 9~10가구가 협력하여 작은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이를하여 '수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다. 입주주민들이 1~2년 전 설계부터 참여해 직접 만든 '공동주택'이다. 이들은 함께 모여 밥을 해먹고, 영화를 보고 함께 기타를 배우기도 한다. 건물실내 전체가 마루가 깔려 복도를 맨발로 걸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 방과 후 집에 돌아온 아이가 공용공간에 가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성미산

에는 현재 소행주 3호까지 건축되었다.

최근 셰어하우스(Share House)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집을 같이 사용하면서 비용도 줄이면서 서로 협력하며 사는 공동체이다. 김포공항 가까이 검단역 근처에 20여명의 청년들이 '우동사(우리동네 사람들)'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다. 대부분이 불교단체인 정토회의 대학생과 청년회원으로 인도와 필리핀 등 국제구호활동과 사회활동을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로 서로 각별한 관계라 함께 집을 얻어 살며, 농사도 함께 짓고, 협동조합식 카페도 3곳을 운영한다. 이들은 공유사회 만들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 공유도시, 나눔 문화가 확대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아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캠핑용 텐트나 집수리용 장비 등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빈방을 외국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도시민박,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카셰어링(카세어링),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남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주차장 공유,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저녁시간 일부만 사용하는 강당이나 사무실 회의실을 필요한 사람에게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공유문화가 본격적으로 사회운동과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을 정도이다.

2013년 8월 30일과 31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2014 공유서울 박람회'가 개최되었고 25개 공유단체·기업,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하였다. 이곳에는 책을 공유하는 공유 서가 만들기, 공구를 공유하는 공유도서관 만들기, 자꾸 커가는 아이 옷 공유하기, 쉽게 질려하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공유하기, 자주 입지 않는 정장을 서로 공유해 입기도 하고, 중고물품, 공연에 사용하는 의상과 물품 등을 공유한다. 또한 카풀의 활용 등을 통해 서로 공유하며, 여행경험을 공유하고, 개인재능 경험 지혜, 지식을 공유한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먼라이브러리, 교회, 독서실, 텃밭 등을 공유하는 활동이 이미 시작되어 활성화되었거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진행되고 있는 수 백개의 마을만들기 운동, 풀뿌리공동체운동의 본질이 바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협력하고 공동체로 사는 운동들이다.



그림·강병호

### 세계는 공유사회로 진화 중

#### 리프킨, 협력적 공유사회 강조

#### 공동주택·카셰어링·협동조합 등

#### '공유' 개념 사회화 관심 높아져

#### 공생·협력·나눔은 미래의 가치

#### 호혜적 경제기반 '관계 회복'

#### 지구 생태계 등 환경문제 해결

### 한계비용제로의 사회가 온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한계비용제로사회>에서 사물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발달로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무료수준의 사회(한계비용제로의 사회)로 이동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는 다음 반세기에 걸쳐 쇠퇴하여 '협력적 공유사회'가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지배적 모델로 자리 잡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과거 1, 2차 산업은 유한한 자원을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여 파헤치고 이용함으로써, 열역학 제2법칙에 의거, 무질서도가 높아지고, 사용가능한 자원이 사용불가능한 자원으로 전환되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환경위기 기후변화라는 '엔트로피 청구서'의 과보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이제 직선적인 성장이 아니라 순환경제를 토대로 한 사회로 나가게 될 것이며, 1차 및 2차 산업혁명의 기술플랫폼이 상의하달식

명령과 통제방식을 갖춘 수직적 중앙집권형으로 설계된 것이라면 이제 3차 산업혁명의 결과 협력적 공유사회 시대는 분산과 공유로 나가게 된다고 말한다. 경제적 성과를 척도로 한 GDP 중심의 생산은 줄어들 것이고, 더 이상 의미있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시장과 경제의 교환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협력적공유사회로 가는 것은 사물인터넷의 분산성과 상호연결적 특징으로 의도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이반 일리치(Ivan Illich)는 우리 사회의 노동이 대부분 (임금노동 (지불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사, 보육, 협력, 나눔의 가사노동 등 <그림자노동 (무불노동)>은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근본활동이라고 말한다. 현대사회는 훨씬 더 많은 무불노동을 기반으로 임금노동이 유지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노동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그는 나눔과 공유, 배품과 돌봄노동 등 임금으로 매겨지지 않는 노동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이며 자립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고유한(vernacular) 노동'을 즐기는 공생(conviviality)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한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노동, 토지, 화폐는 상품이 아니므로 시장의 매커니즘에 의해 포섭될 경우 약마의 멍뜰에 의해 인간사회가 '갈려지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전에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

(Herbert Spencer)는 다윈의 자연인식을 사회에 잘못 적용하여 적자생존, 약육강식, 생존경쟁으로 규정,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계급사회를 지지했지만, 자연은 상호부조와 공생과 협력이 근본이며 협력한 종이 진화과정에서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을 밝힌 크로포트킨(P. A.Kropotkin)은 결국 인간과 인간간의 협동과 협력을 중심으로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돈 아닌 사람에 의존하는 사회

앞서 말했듯이, 마을 주민들의 모임 공간을 위해 건물을 지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쓰지 않는 시청, 구청, 자치센터 회의실과 강당을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모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공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문화가 확산되면 사람들간 교류가 늘어나고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되면서 끈끈한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유는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과잉소비로 인해 자원이 과다 사용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는 하나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며,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을 사용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적게 사용하게 된다.

감수록 비정규직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파트타임노동이 일상

화되고 있는 이때 결국 돈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모두에게 행복을 줄수 없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발전으로 생각하는 인간에게 지금같은 무한한 수직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한 성장주의로 인해 지구생태계는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도 벌써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돈에 의존하는 삶'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 인간의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람의 협력, 협동관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긴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미래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이다.

### 본래 내 것이 없는 무소유의 이치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말했듯이 가난한 사람끼리의 결합, 협력, 상호부조와 협동밖에 없다. 약한 사람들도 결국 약자들끼리 협력이 살길이다. 청빈과 소욕지족의 삶을 살아온 것은 불교 오랜 수행의 전통이며, 무소유의 삶은 이제 불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인류가 이루어야 할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종교는 결국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의 종교로 전락한다. 돈이 우상이며 중심이다. 대학도 결국 고급 직업훈련소로 전락했고, 친구를 사귀고 결혼하는 것도 결국 계층상승의 욕망이 투영되어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비틀어진다.

공유와 나눔, 돌봄과 협동은 아주 중요한 미래의 가치이자 공동체적 가치이다. 그러나 이들 공유와 협력은 "내 것이 있다"는 소유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없는 무소유의 이치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는 물건,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나의 능력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수많은 천지자연과 중생의 은혜를 입고 있는 나는, 그들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돌려주고 쓰기도 해야 하고 자신도 잘 쓰이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 물건을 내 것이 아니다. 내 부인도, 내 아들 딸, 집도 나무도, 토지와 땅도 내 것이 아니다. 만일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명확하다면, 이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을 가장 잘 쓸 사람은 누구일까를 찾아야 한다. '나는 누구에게 가장 잘 쓰일까, 누구에게 잘 이용되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 불자된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회주 덕민 주지 원학

총무국장	각원	교무국장	정진	재무국장	성륜
사회국장	상법	포교국장	혜찬	교육국장	일진
노전국장	선행	선 감	진법	원주국장	제은

사부대중 일동

봉은사는 새해부터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기도'를 하여 가정 행복과 봉은사 중창불사 원만회향을 발원합니다.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 기도'는 2015년 3월 5일 입재하여 매달 음력 보름 오후 1시부터 전 도량에서 열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